

2007. 1월, 2월 제90호

다니 again



사랑하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정신장애인 우리의 이웃입니다.

한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관악지부
www.1wool.or.kr



Contents

3 세계장애인한국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글 – ‘법 앞에서의 평등’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과 관련 장애인의 법적 권리의 중요성 대해 알아봅니다.

6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관악지부 장애인보호작업장 특집
'아·름·다·운·사·람·들·이·모·인·신·바·람·나·는·일·터' EM 실천(정신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발자취와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봅니다.

16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관악지부 사회복귀시설 2007년도 사업 계획 및 방향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새로돋는 집(남성정신장애인 주거시설), 꿈꾸는
집(여성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2007년 丁亥年(정해년) 사업계획과 방향에 대해 소개합니다.

20 한울회원의 글 – ‘함께 어울려 마음을 열게 된 한울을 떠나며’
대학 재학 중 발병, 정신과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던 중 한울센터를 알게 되어 행복을 느끼게 되고 복학하여 대학졸업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된 한울회원이 센터를 떠나며 쓴 글입니다.

21 2007년도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안내
2007년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모집일정안내입니다.

21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관악지부 소식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행복한 소식부, 환경부, 문화복지부, 취업부), 수급자재활프로그램
(그루터기), EM실천, 새로돋는 집(남성정신장애인 주거시설), 꿈꾸는 집(여성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의 1월 2월 소식입니다.

23 후원안내 – 한울 관악지부 후원자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4 한울 자원봉사자님들
한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신보건법 제41조 권리보호 2항에 의거하여 소식지는 ‘다시’는 희망하는
회원에 한해서 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



김 대 성

2006년 12월 13일은 전세계장애인에게 역사적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위대한 날이 되었다.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촉진, 보호,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제정된 날이기 때문이다.

UN총회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후 2002년부터 8차에 걸쳐 전 세계의 각 국가가 참가해 치열한 논의 끝에 조약은 만들어 졌고 12월 13일 마침내 UN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전문과 50개 조항 및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선택규약18조로 되어 있다. 그 중 장애인의 법적권한의 문제를 다룬 12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과 17조 개인의 고유성 인정 조항은 지적장애인(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과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장애인의 법적 권한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향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적권한은 개인의 고유성, 자유,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의 동의 조항뿐만 아니라 결혼, 투표, 사법 접근권, 생명권, 법 앞에서의 차별 없는 평등, 공개 노동 시장을 통해 직장을 얻을 권리와 같은 기타 다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 권한은 모든 장애인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비장애인의 장애인을 대신해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권리를 차단당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대리인제도에 인하여 오히려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리모델(substitution model)에서 지원모델(support model)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대리모델과 지원모델의 차이는 자기결정권 박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지원모델은 기존의 전제, 즉 ‘독립적으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당사자는 법적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전제를 부정하는 모델이다. 지원모델은 모든 장애인이 실제로 법적 권한 행사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조 지원 보장도 포함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나 의료조치 및 시술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에, 일의 주안점과 당사자의 요구 및 희망 사항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구어가 아닌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청각 장애인의 경우)에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보조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 지원의 목표는 당사자가 자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돋보는데 있다. 보조 지원은 당사자를 대신해 타인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하게 될 경우,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안전조치는 제공된 지원의 형태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사법기관의 주기적인 검토 등이 안전조치의 일환일 수 있다.

지원모델은 무의식 상태나 혼수상태에 빠진 경우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비롯해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항상 당사자의 의지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파악된 결과에 근거해 당사자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의사 결정과정에서 윤리적 법, 규범 혹은 기준과 엄격한 안전 조치가 준수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지 및 선호는 어떤 대리판단보다 앞서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안전 조치 준수는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러시아, 중국, 아랍 등 각국 정부는 법적 권한의 의미와 법적권한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그 범위 및 실제 적용은 각 국가의 법과 제도와 상충될 수 있다고 강한 반대를 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의 법적 권한에 대한 권리 혹은 이 권리 행사권을 부정당하게 된다면 장애인의 인권은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다. 법적 권한이란 법제도의 틀 안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바(what a human being can do)’를 의미하는 것이라도, 특정 개인이 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함은 인권의 틀을 마련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국제장애인 권리조약(안)

ARTICLE 12 - 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1. States Parties reaffirm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persons before the law.
2.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joy legal capacity¹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in all aspects of life.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vide acces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the support they may require in exercising their legal capacity.
4.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measures that relate to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provide for appropriate and effective safeguards to prevent abus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uch safeguards shall ensure that measures relating to the exercise of legal capacity respect the rights, will and preferences of the person,

are free of conflict of interest and undue influence, are proportional and tailored to the person's circumstances, apply for the shortest time possible and are subject to regular review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The safeguards shall be proportional to the degree to which such measures affect the person's rights and interests.

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own or inherit property, to control their own financial affairs and to have equal access to bank loans, mortgages and other forms of financial credit, and shall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not arbitrarily deprived of their property.

12조 – 법 앞의 평등(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1.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모든 차원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 인지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한다.
2.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이 인생 전반에 걸쳐 타인과 동등하게 법적 권한(legal capacity)를 향유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3.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법적 권한 행사시 필요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당사국 정부는 법적 권한 행사와 관련된 모든 조치가, 국제 인권 법에 근거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 장치(safeguard)를 제공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 장치는 법적 권한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당사자의 권리, 의지, 선호도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이익에 상충되지 않으며, 불필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당사자의 상황에 적절하고 알맞게 적용되며, 가능한 단기간 적용되고, 역량 있고 독립적이며 공명 정대한 기관 및 사법 기구의 정기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위 안전 장치는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알맞게(비례해서: proportionate) 제공되어야 한다.
5. 본 조항 항목 적용의 대상으로써,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자신의 재산 및 상속 받은 재산, 자신의 재정 문제 관리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은행 대출, 담보 대출 및 기타 형태의 금융 기관 신용 대출(financial credit)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합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장애인이 임의로 재산을 강탈당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해야 한다.

김대성 선생님은 현재

- 2007 제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2004~)
-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단 초안위원회 위원(2003~)
- 한국장애인재단 운영위원(2006~)
-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사(2004~)
- 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 위한 모임 자문위원(2003~)

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M실천 : 박 동진

새로움은 언제나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반하여 나에게 다가온다.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내심 소심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복사일이라는 새로운 작업이 나에게 맡겨졌다. 선임인 병수 형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지만, 직접 하기에는 두려움이 먼저 내게 다가온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준 EM실천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며, 무언가를 배우는 좋은 시간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접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한다. EM실천 분들과 함께 한 달도 소중히 친절하고 싶다. 내게 주어진 길의 앞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조심스레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떠올려보며 지금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다시 EM 실천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복사 업무가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EM실천 : 강 병수

EM커뮤니티에서 복사를 배운지도 얼마 안됐는데 복사담당인 민주씨가 1월부로 그만 두었어요. 아직 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홀짝 가버리니까 난감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담당선생님께서 복사물의 앞뒤를 잘 맞추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복사가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난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 여백이나 ‘상’ 여백을 주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여튼 담당선생님이 맞추라고 했으니까 잘해서 열심히 해야겠어요.

동진이라고 하는 훈련생이 있는데 같이하니까 재미도 있고 힘들지 않고 좋아요.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데... 혹시 실수라도 할까 걱정이에요. 하면서 잘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EM실천에 온지 얼마 안 되어 팀장직책에 이어 복사라는 중책을 맡아서 하게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리고 김형광과장님이 새 복사기를 산다고 했는데, 내가 그 복사기를 잘 다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면서 배워야겠어요.

결론은 무조건 열심히!! 열심히해서 돈 많이 벌어서 집사야겠어요. ^^ 저 부자 되겠죠?
지금은 두렵고 조금은 긴장되어 아무것도 모르지만 앞으로 복사의 달인이 되도록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저에게 다짐해 봅니다. 올해 시작한 복사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길... 파이팅!!

행복한 한 해 되세요!!



EM실천 : 유 영 실

EM실천 팀장 유영실입니다. EM실천에 다닌지 4년이 되어 가는데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어떤 곳이지도 모르고 일해 온 듯합니다. DM업체로써 성장하고 있는 EM실천의 미래가 환해지길 바라고 올해는 더 열심히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할 겁니다. 또 올해는 많은 회원들이 취업하길 바라며 행복한 한 해 되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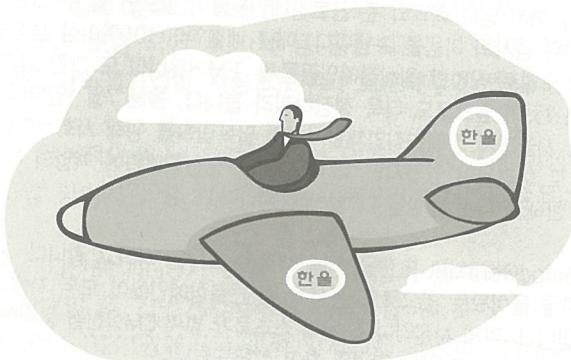
새로운 부팀장입니다



EM실천 : 박 계 영

HI~! EM실천 여러분 저 부팀장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부팀장이 되었습니다. 부팀장이라고 해도 다른 회원들과 다른 것은 없다고 하지만 기쁨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부팀장이 된 이후 나의 직장 생활은 기쁨과 활기로 넘칩니다. ‘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야 하고 일도 더 열심히 하여야 하고,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겠고..

아무튼 저는 요즘 기쁨 모드입니다. 출근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EMpowerment를 위해」



EM실천 시설장 : 김영환

겨우내 잠들었던 꽃과 나무에 이제 따뜻한 햇볕이 내려 잠을 깨우고 간간히 불어오는 꽃내음이 향기롭게만 느껴지는 2월 따스한 봄에 햇살의 움트는 새순처럼 늘상 우리들 가슴에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안겨주는 이 봄! 다시 한번 의미 있고 뜻 깊은 삶에 대해 되뇌어 봅니다.

EM실천에서 근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EM에 왔을 때 어디에나 있는 똑같은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EM실천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과 설립 취지에서부터 이제까지 걸어온 길과 비전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 여느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습니다. 요즘 EM실천이 빠른 속도로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생각하면 매일 아침 뿐듯한 가슴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듣는 말 중에 제일 자주 듣는 말이 'EM이 무슨 뜻입니까?'라는 말입니다. 그럼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empowerment'의 첫 두글자라고 말합니다. empowerment는 단순히 풀이하면 역량강화, 능력강화이지만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에게 삶의 목표를 갖게 해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아주는 의미로서, 클라이언트뿐만 아닌 우리 직원들 스스로도 empowerment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M실천 회원 중 신영권씨의 경우 자기관리와 시설에서의 empowerment가 잘 조화되어 매우 성공적인 모델로 몇몇 학교에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신대 empowerment가 잘 조화되어 매우 성공적인 모델로 몇몇 학교에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신대 학교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신영권씨가 매우 긴장된 상태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신영권씨의 강의를 들은 한 학생이 매우 반가워하며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때 그 강의로 인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맺는다고 생각하니 EM실천이 회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개선에도 매우 이바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장애인의 empowerment를 위해, 초창기 교수님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출자하여 복사기 몇 대로 시작한 EM 실천이 이제는 인쇄소를 차리고 DM(Direct Mail)에서도 많은업체와 거래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시설로 등록되어 각 정부산하기관 및 많은 거래처에서 주문이 밀려들어 오는 것을 보면 힘도 들 한 장애인생산품시설로 등록되어 각 정부산하기관 및 많은 거래처에서 주문이 밀려들어 오는 것을 보면 힘도 드는 것은 지만, 그만큼 매출액이 많이 늘면 근로장애인에게 좀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근과 철야작업이 많음에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직원들과 끝까지 믿고 따라와 준 근로장애인분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EM실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매년 매출액이 100% 이상 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 실시 될 예정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탈독립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 왔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정신장애인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에 올 한해도 더욱 열심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empowerment 도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쇄, DM 발송, 작업등으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왔듯 앞으로도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들이 모두 자립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empowerment를 하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벌써 EM실천을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M실천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충고 부탁드립니다.

EM실천 시설장님의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형태로 일반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형태입니다. 의사 결정도 주주 외에 근로자서비스 수혜자지역사회 인사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란?



2007년 7월부터 사회적기업에 국공유지 임대지원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2007년 1월 3일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 노동부차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공유지 임대와 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및 기업 인건비운영경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기업이 생산하는 생활용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 주는 등 사회적기업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해주게 됩니다.

노동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NGO가 기업과 연계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중 약 75개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육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NGO가 기업,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 장애아동 방과 후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장애인 등 간병가사서비스 제공, 결식이웃 도시락공급 등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483억을 지원하여 8,3221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인쇄소 동료 여러분께



EM실천 인쇄과장 : 김 형 광

2007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EM실천 여러분과 함께 일한 지도 어느덧 4년이란 시간과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장애인이라는 편견이 저도 모르게 존재했었는데, 그런 편견을 가졌던 제가 EM실천에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근무하다 보니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관심과 조금의 사랑을 나누어 드리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쇄소 동료 여러분!

2007년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화이팅!!

EM실천은 정신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얻어지는 수익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직업알선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은 EM실천을 2003년 3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M실천'의 발자취입니다.

· 1992. 4	정신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연구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대대학교수들의 모임 시작
· 1997. 4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의료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설립허가
· 2000. 2	정신장애인 창업모형 작업장 EM실천 인쇄소 창업
· 2002. 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신규프로그램지원 '정신장애인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헛빛자리' 사업 수행
· 2002.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편발송대행사업' 선정
· 2003. 3.28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EM실천' 설치신고
· 2003. 4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선정
· 2004. 6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소방시설지원 '하론'
· 2005. 5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차량지원 '6인승 벤'
· 2005. 6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23조에 규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선정
· 2007. 7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정신장애인 고용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

EM실천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더 이상 시혜나 자선의 대상으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서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간다는 뜻을 가진 Empowerment의 줄임말입니다.

EM실천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로써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 사회 적응능력, 직업유지능력의 향상을 위해 직업적응능력을 평가, 전문적인 상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직업을 가짐으로써 받는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 경제적 자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역할수행을 돋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등록 정신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접수 및 상담 → ② 초기면접 → ③ 사례회의 →
 - ④ 적응기간 훈련 → ⑤ 적성 및 흥미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

서비스 절차

EM실천

정신장애인에게 직업의 의미는 자활과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현재 20여명의 등록 정신장애인들은 일하기를 원하며 사회로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사업

다양한 홍보물과 정기간행물을 신속, 정확, 저렴한 우편료로 여러 기관의 인쇄,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호작업

단순부업, 전기부품조립, 문구류 조립 및 포장, 지원고용, 아르바이트, 임시 및 정식 취업체 개발 및 사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EM실천 인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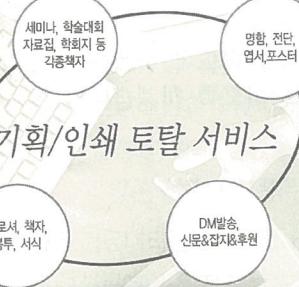
여러 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전문인쇄기술훈련과 다양한 직업경험을 통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일터입니다. 더불어 인쇄전문기술자와 함께 다양한 홍보와 인쇄, 편집, 디자인 훈련을 통해 최고의 인쇄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M실천은 인쇄 및 행정봉투등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장애인 생산물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신바람나는 일터 "EM실천" 특집Ⅲ

"매스컴에서 본 EM실천"

사업영역



매스컴과 함께한 E

매스컴과 함께한 EM

■조선일보에 실린 EM실천기사(03.6.24)

A20 2004년 6월 24일 목요일 4면 A20면

기획특집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 인쇄공장 'EM실천'

사회복지사 10명, 낙봉·봉사를 조제 중자든 바쁜 창업 3년만에 손익분기점 넘겨 '일의 회사 자신'

정신장애인 고용... 인쇄소 만든 사회복지시설

기획특집

2004년 6월 24일 목요일 4면 A20면

"정신장애인 고용"... 인쇄소 만든 사회복지시설

가톨릭대 이종표 교수 "장애인 위한 공간 만들기"

사회복지사 10명, 낙봉·봉사를 조제 중자든 바쁜

창업 3년만에 손익분기점 넘겨 '일의 회사 자신'

주제: 창업 3년만에 손익분기점 넘겨

기획

‘EM 실천’
2007년도 계획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신바람나는 일터 “EM실천” 특집 V



‘EM 실천’ 2007년도 계획

1.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전문프로그램을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명 시설에서 25명 시설로 확장하여 더 많은 정신장애인분들을 고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기업 은행 등과의 연계 고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임시취업 및 연계취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도입으로 체계적인 물량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한울센터 취업부와 효과적인 직업재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M실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Ege	컴퓨터교육으로 Education global empowerment
Focus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2권 이상의 책 읽기
Job자	직업활동에 필요한 면접기술, 지원서류작성 등에 대한 취업준비교육, 최근 고용동향 및 고용과 관련된 신문스크랩을 통한 흐름파악, 자신의 고용 가능성 파악
동아리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구성원들간의 유대관계를 강화
행복여행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회원들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소속감을 증대 www.jeju.com
Relax	딱딱한 정신건강교육이 아닌 실제 근로환경에서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토론의장을 마련
취업유지	현재 인쇄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각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편안한 환경에서 나누자
훈련	인쇄, 복사, 우편발송작업을 연중 실시





(EM 커뮤니티 : 문 창 숙 사장)

EM 커뮤니티

'EM 커뮤니티'는 2004년 5월 설립된 광고대행&디자인 인쇄업을 하는 장애인 공동체 사업장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제품을 추구하면서 인쇄 및 복사로 시작하여 디자인, 광고, 출판 등으로 꾸준히 영역을 넓히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소외된 정신장애인들이 동등한 사회참여를 지향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공동체의 구성도 이와 같은 이념의 구현을 위해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M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경영을 자문하는 운영위원회와 제작을 지원하는 기획위원회에는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 그룹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M커뮤니티는 2004년 6월 사회연대은행의 지원을 받아 아담한 공간을 마련하여 여성정신장애인 일자리창출과 인쇄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인쇄를 시작할 때에는 거래처에서 디자인과 한글 편집을 요구할 때마다 외부에서 사람을 구하느라 무척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디자인 한 인쇄물을 보고 연락을 하는 곳도 생길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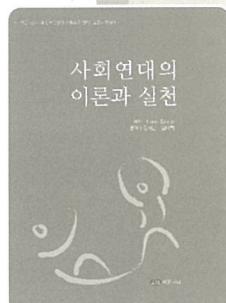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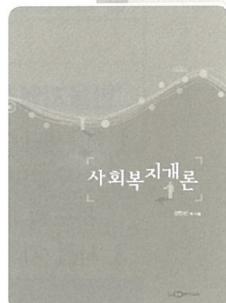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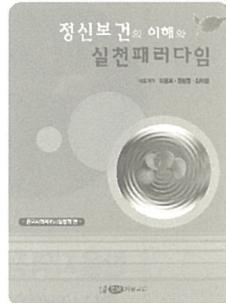
EM커뮤니티는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관악지부의 EM실천과는 사촌 관계입니다. EM실천은 인쇄기를 보유하여 마스터 인쇄와 옵션 인쇄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EM커뮤니티는 인쇄 과정 중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업무인 한글편집과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복사와 출판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출판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지만 사회복지 전문 출판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개론을 비롯한 10여개의 서적을 출판하여 지명도를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출판된 서적이 유명 서점에서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여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성장했지만 더 많이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인쇄기획과 출판업무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해 편집과 디자인 영역에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더 많은 정신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M 커뮤니티' 2007년도 계획

- ① 복사 업무직 1명 인력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복사 및 영업 관련 훈련생 2명을 선발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③ 인근 전문학교와 연계한 외부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정신장애인 인력 충원 및 훈련생 제도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관악지부 사회복귀시설 2007년도 사업 계획 및 방향”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새로돋는 집, 꿈꾸는 집-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새로돋는 집(남성장애인 주거시설), 꿈꾸는 집(여성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들입니다.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들이 집에서 출퇴근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낮 시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양한 생활훈련과 직업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입니다.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2007년도 계획

1. 한울센터 이용을 위한 대기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여 등록대기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문교양, 여가활동, 개별지원교육 및 몸 체험 프로그램의 강화로 이용회원의 서비스 다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전, 사후 서비스 지원체계를 보강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개별지원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에서의 자원동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자원활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직원교육 강화를 통해 사업방향성에 일체감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활 프로그램 시간표』

사회재활 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유지와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서 일상생활기술훈련, 약물관리교육, 긴장이완훈련, 여가활동훈련, 사회기술훈련을 포함하는 생활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시간	월	화	수	목	금
9:30~10:00			부서활동		
10:00~10:10			전체체조 및 공지사항 전달		
10:10~12:00			부서활동(행복한소식부/ 환경부/ 문화복지부)		
12:00~13:30			점심시간		
13:30~15:00	전체회의	자기관찰을 위한 집단상담	정신건강교육	컴퓨터 교육	취미 A
		일상생활 프로그램	영어 A	영어 B	취미 B
		취업 전 프로그램	현장중심 사회기술훈련	자아성장 프로그램 ‘다시서기’	인문교양 프로그램
15:00~15:30			부서별 청소 및 마침모임 / 귀가		
15:30~			동아리 활동 계획 중		

사회재활 세부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내용
자기관찰을 위한 집단상담	몸동작, 느낌 관찰을 통한 자기통제력의 증진 및 자아통찰 명상
일상생활 프로그램	성취경험을 통한 부족한 일상생활 기술 인지 및 습득
취업 전 프로그램	취업현황 및 현실인식과 취업부로의 도전 길 열기
정신건강교육	자기증상 이해 및 중요성 인식, 자기증상관리 능력강화
영어 A	생활영어 중심의 실용영어 활용능력 강화
영어 B	팝송 중심의 영어와 친해지기
컴퓨터 교육	한글문서작성, 인터넷 활용
현장중심사회기술훈련	실제장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기술 습득 및 훈련
자아성장프로그램 '다시 서기'	삶의 주체로서 회복과정에 참여하기
인문교양프로그램	화제가 되거나 생활에 도움 될 서적 및 작품의 감상 및 토론
취미 A	영화관람 중심/ 문화센터 이용 계획
취미 B	음악감상 중심/ 공연관람 계획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작업 능력 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관련 훈련입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 시간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부서활동
10:00~11:00					운동프로그램
11:00~12:00	한 주 계획 세우기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		작업평가
12:00~13:00			점심 식사		
13:00~14:00	작업평가				
14:00~15:00	전체회의				작업평가/ 구직활동/ 외부프로그램 등
15:00~16:00	작업평가				
16:00~16:30			청소 및 마침모임 / 귀가		

직업재활 세부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내용
운동 프로그램	활동적인 운동 및 실내 운동 병행
취업 1팀	취업준비 프로그램 (일상생활 습관 변화 중심의 교육)
취업 2팀	취업준비 프로그램 (변화된 마음유지 및 실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중심의 교육 및 활동)

새로돌는 집

남성정신장애인 주거시설로 정신장애인들이 그룹을 이루어 일반 가정과 유사한 물리적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로 독립생활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낮 시간 동안에는 이용시설 등 다른 기관을 이용하거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2001년 3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돌는 집’ 2007년도 계획

1. 종사자의 안정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치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공임대주택을 활용 종사자 확충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복회원이 역할 모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독립생활회원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돌는 집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내용
일상생활훈련	주 7회 장보기 훈련, 식생활 관리, 요리훈련, 의복관리, 세탁관리, 개인위생관리, 대청소 등
자치회의	주 1회 지난 한주간의 생활에 대해 나눔
여가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프로그램 : 지역사회문화시설, 현장이용, 영화관, 연극관람, 뮤지컬관람, 찜질방 이용, 스포츠 경기 관람(축구, 농구, 배구 등), 볼링장, 노래방 등· 단기 여행 : 기차여행, 단풍여행 등
직업재활	주거시설에 입주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회원의 직업욕구부분을 파악하고, 주거 시설이용 6개월 이내에는 취업경험을 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직업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함
재가서비스	월 2회 가정방문을 통해 밑반찬 서비스, 일상생활 관리를 도움.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후원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

새로돌는 집은 7~10인 남성주거 시설로 현재 2명의 남성 사회복지사와 8명의 회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2007년 2월에 새로이 확장 이사하였습니다.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610-37번지 301호 문의 : Tel. 872-9961 Fax. 853-2335

꿈꾸는 집

여성정신장애인 주거시설로 정신장애인들이 그룹을 이루어 일반 가정과 유사한 물리적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서, 주로 독립생활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낮 시간 동안에는 이용시설 등 다른 기관을 이용하거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2005년 1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집’ 2007년도 계획

1. 종사자의 안정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원등록경로의 다변화로 주거 시설이 필요한 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꿈꾸는 집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자차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관내 여성 주거시설의 신설에 대비하여 시설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집 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내용
일상생활훈련	주 7회 장보기 훈련, 식생활관리, 요리훈련, 의복관리, 세탁관리, 개인위생관리, 대청소, 자치회의 등
욕구프로그램	운동, 얼굴 가꾸기, 약물 및 증상관리
여가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프로그램 : 지역사회문화시설, 현장이용, 영화관, 연극관람, 뮤지컬관람, 짐질방 이용, 스포츠 경기 관람(축구, 농구, 배구 등), 볼링장, 노래방 등 · 단기 여행 : 기차여행, 단풍여행 등
직업재활	주거시설에 입주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회원의 직업욕구부분을 파악하고, 주거 시설이용 6개월 이내에는 취업경험을 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직업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함
재가서비스	월 2회 가정방문을 통해 밀반찬 서비스, 일상생활 관리를 도움.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후원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

꿈꾸는 집은 7~10인 여성주거 시설로 현재 2명의 여성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8명의 회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715-40번지 201호 문의 : Tel. 877-9974

“함께 어울려 마음을 열게 된 한울을 떠나며”

행복한 소식부 : 박 ○ 진

제가 처음 한울센터에 왔을 때는 여기가 천국인줄 알았습니다. 실제 사회는 무한경쟁시대라 서로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을 닫아버린 제가 마음을 열게 된 곳이 바로 한울입니다. 여기 한울에 오신 분 대부분이 서로 다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깊게 나누다 보면 상처로 인해 서러움을 받았던 사실에 공감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나누다 보면 상처로 인해 서러움을 받았던 사실에 공감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깊게 나누다 보면 상처로 인해 서러움을 받았던 사실에 공감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깊게 나누다 보면 상처로 인해 서러움을 받았던 사실에 공감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울센터를 길게 이용하지 못하고 한달만 이용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대학교를 입학한 뒤 발병하여 3년 동안 휴학을 해서 더 이상 연기가 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를 가야만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한울에서의 사람들과 어울림, 그리고 한울에서 준비해 준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등으로 자신감을 회복하여 졸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미리 이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울센터에 다니시는 여러분 혹은 정신병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정신병이란 것이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극복되는 병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평생 가져가야 할 병이라고 생각도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정신병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에 걸려서 약은 비록 먹고 있더라도 나는 어느 정상인 못지않게 건강하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잘 조절해서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환청과 환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지만 무시를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처리를 못하거나 우둔하거나 하면 ‘내가 병이 걸려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로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훨씬 발전된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여서 졸업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졸업을 하면 군 상자 들고 기쁜 마음으로 한울 센터를 찾아뵙겠습니다.

그전에도 가끔 얼굴 보일께요.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의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한울 파이팅!



2007년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수련생 모집안내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는 2007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생을 모집합니다.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들이 2007년도 5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인 3월 20일 이후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1wool.or.kr 혹은 기타 정신보건관련 사이트나 사회복지 사이트에 공지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한울센터

- 1월 8일 1/4분기 한울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 시작 및 부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 1월 12일 취미 · 여가 활동으로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를 관람하였습니다.
- 1월 23일 가족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1월 25일 센터 이용 대기자 등록을 위한 기관안내가 있었습니다.
- 2월 1일 윤숙경 과장님의 새로 오셨습니다.
- 2월 3일 범인 감사를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2월 9일 이사회가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2월 13일 삼성생명에서 밀반찬 서비스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 2월 27일 이 · 미용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 2월 28일 가족회가 "정신장애인의 가족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서울시 공동모금회 지원 결혼준비 프로그램 매뉴얼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소식부

- 1월 모범회원으로 한인엽씨가 선출되었습니다. 11월에 이어 또다시 모범회원이 된 한인엽씨! 축하드립니다~!
- 유대근씨가 2월 14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생일을 맞이하여 초콜릿 선물을 하나 가득 안으신 유대근씨~ 다시 한 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 박○진씨가 1월 부서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행복한 소식부를 멋진 소식부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연주씨가 2월 부서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 박○진씨가 학교로 복학을 하게 되어 센터 이용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복한 소식부의 일꾼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복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랍니다.
- 오재원씨가 취업부로 이동 하셔서 취업에 도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취업부에 서도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 2월부터 부서 활동을 부서 회원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은 이 회자씨가 진행하는 '이회자의 시사토크', 수요일은 오영희씨가 진행하는 '오영희의 기관라운딩 연습'과 한인엽씨가 진행하는 '한인엽의 음악 공연', 목요일은 김혜경씨가 진행하는 '김혜경의 토크쇼', 금요일은 유대근씨가 진행하는 '유대근과 함께 차 한잔'이 진행됩니다. 각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만큼 멋진 부서활동 프로그램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화이팅!

환경부

- 1월 모범회원으로 이유경씨가 선출되었습니다. 평소 출퇴근 관리에 철저하고 솔선수범 하는 모습이 환경부 회원들의 지지를 받은 원인이었습니다.

- 2월 부서장으로 이건석씨가 선출되었습니다.

· 조병학씨와 이희제씨가 1월 취업부로 부서이동 하셨습니다.
취업부에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 1월, 2월 강윤정 실습 선생님이 환경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 환경부의 2007년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2007년 매주 화요일 시설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금요일은 '끌리는 사람 1%가 다르다'를 읽고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복지부

- 윤숙경 선생님이 과장님으로 문화복지부의 새로운 담당이 되셨습니다.
- 1월 신림동 순대촌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 문상미 실습 선생님이 1월부터 2월 2째주 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실습을 하고 취업부에서 2월 9일까지 실습을 하고 겨울방학 실습을 마쳤습니다.
- 문화복지부는 스낵바 및 커피자판기를 운영하며 다양한 여가활동 및 건강식단을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즐거운 센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 2007년도 문화복지의 목표는 첫째, 건강한 문화복지부를 위해 출근율을 높이자! 둘째, 신나는 스낵바를 위해 많이 팔자! 셋째, 청결한 문화복지부를 위해 위생관리를 잘하자! 마지막으로 깔끔한 문화복지부를 위해 주변정리를 잘하자!로 정하였습니다.



취업부

- 취업부 여가활동으로 신림 프리미스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1팀은 '종천', 2팀은 '저스트프랜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1월 23일 민들레 영토에서 취업유지 신년모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금을 타시고 보람 있는 시간을 돌아보고 신년계획을 세워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자~~~~ 열심히 살자! ^^
- 1월 29일부터 취업부 작업능력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옷걸이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취업 2팀에서는 매주 수요일은 구직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나에게 맞는 직장을 찾고 싶습니다.



- 2월 7일 구직활동으로 관악고용안정센터,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가서 구직등록을 했습니다.
- 2월 5일 박동진씨가 EM실천에 임시취업 되셨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하여 직원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



- 그동안 한울에서... 특히 취업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셨던 정공주 과장님이 결혼으로 인해 한울을 그만두시고 대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
- 2월 1일부터 문화복지부의 이은선 선생님이 취업 2팀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해주세요~ ^^
- 한울 실습생으로 2개월 정도 한울가족과 함께 했던 문상미선생님 실습이 종료되었습니다. 함께해서 즐거웠고, 뜻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 1월의 우수회원은 조두원씨입니다. 짹짜짜!!
- 1월 20일은 조두원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 최미라씨, 이희제씨, 조병학씨, 오재원씨가 주간재활에서 취업 1팀으로 오셨습니다. 취업하는 그날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모습 기대합니다. ^^
- 이세호, 이성우씨가 취업2팀으로 오셨습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횟팅!!

그루터기

- 이O식 회원이 1년 동안 단주와 금연을 하고 계십니다. 단주와 금연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 박O정 회원의 따님인 김?희 양이 영화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그 동안 TV프로그램 단역을 맡아서 출연한 TV프로그램을 그루터기 회원들과 함께 시청을 했는데 이젠 영화 오디션에 합격해 주인공의 어린시절 역을 얹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 그루터기 회원들을 위해 미술치료 자원봉사를 하신 배우리, 이소연 선생님이 2월 22일에 졸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M실천

- 생일파티, Ege(컴퓨터 교육), Focus(독서토론), Job자(취업준비교육) 등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 매주 토요일 싸커(운동), 스크린V6(영화관람), 라디오 스타(음악감상) 등 3개의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인쇄소 회원들과 보호작업장 회원들이 일정부분 작업을 분담하면서 더욱 더 친근해지고 있습니다.
- 올 10월 제주도 여행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팀장으로 유영실씨가 부팀장으로 박계영씨가 선출되었습니다.
- 회원분들과 정기적인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새로이 회원분들의 담당 선생님을 정하였습니다.
- 박계영씨 전형호 대리님이 1월에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강영혜씨가 2월에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2월 우수회원으로 유영실 팀장님이 선출되었습니다. 팀장으로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신 것이 우수회원으로 선출되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 박동진씨, 강병수씨가 EM커뮤니티에서 업무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 박민주씨가 EM커뮤니티에서 퇴사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김상희씨가 EM보호작업장에 신규회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 김재식씨가 2월 16일에 EM보호작업장에서 퇴사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강영혜, 강미희씨가 2월 20일부로 비클시스템에 취업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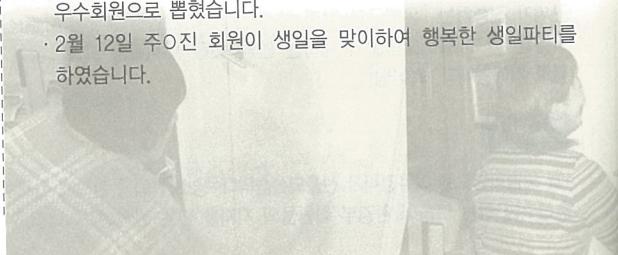
새로듣는 집

- 1월 31일 새로듣는 집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바뀐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3동 610-370번지 301호입니다.
- 2월 22일 새로듣는 집 가족회가 실시되었습니다.
- 2월 11일 현재 총 8분의 회원으로 남성 정신장애인 주거시설 새로듣는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꿈꾸는 집

- 2007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꿈집 각 방문 페인트칠을 흰색으로 하여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 1월 7일 조O란 회원이 꿈꾸는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방바탕가^^
- 1월 16일 관악FM방송에서 리정현PD가 꿈꾸는집에 대해서 녹화하였습니다.
- 서울대점 아웃백 이벤트에 당첨되어 아웃백 직원이 직접 와서 립, 샐러드, 치킨 등 다양한 음식을 차례 주어 꿈꾸는집 회원들과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 2월 10일 영화 '바람피기 좋은 날'을 관람하고 찜질방을 다녀왔습니다.
- 1월 회장으로 애써주신 강O희 회원이 2월 달에도 회장이 되어 자치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2월 달 매주 토요일에 강윤정 실습 선생님이 방문하여 꿈꾸는집 식구들과 함께 텅수육, 떡볶이, 꼬마김밥 등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찜질방을 다녀왔습니다.
-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본인 당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회원들을 도와주시고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강O희 회원이 1월 우수회원으로 뽑혔습니다.
- 2월 12일 주O진 회원이 생일을 맞이하여 행복한 생일파티를 하였습니다.





후 · 원 · 안 · 내

한울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의 주인공들

후원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주소가 변경된 분들도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지로용지는 회비납부 및 후원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 흥은주, 임선희, 최지윤, 김도경, 송파경찰서, 이봉원, 양현모, 문주형, 김영미, 이성두, 권현주, 김정기, 최옥주, 윤진, 송경옥, 이은선, 신혜은, 박정식, 이인재, 강진희, 변가윤, 김유라, 이서곤, 김영환, 임성수, 박미선, 김형광, 박경식, 홍을선, 전덕순, (주)영광 권혁문, 유옥정, 송승희, 김찬우, 권혁삼, 김옥희, 김동래, 이풍자, 김미향, 안종희, 임종오, 류승원, 최규중, 장재혁, 서교일, 김효주, 주선영, 유재덕, 박선영, 김은우, 정곤, 윤정평, 이희순, 정미영, 지은성, 김호정, 최승현, 김지상, 정재호, 이문자, 엄장용, 최미정, (주)태원이 엠씨, 이준수, 곽진주, 이경진, 명원, 김유민, 김윤장, 강승주, 서광훈, 윤미숙, 고은하, 문성주, 권구태, 문창숙, 송인규, 김종주, 장혜경, 김동진 조흥식, 이용표, 박경수, 백은령, 신인순, 양정빈, 최옥주, 사정희, 최애정, 신영권, 노현희, 유영기, 이동원, 안일환, 마광수, 이현, 김외수, 김용득, 최월웅, 김승희, 김선희, 김수철, 흥은주, 이성두, 이천근, 강상경, 허윤정, 강자은,

특별후원 | - 뚱뚱지 숯불갈비 쌀떡후원, 뺑굼터 주 2~3회 정기적으로 뺑후원.
- 황범준님 1,000,000원
- 법제처 경제법제국 (새로듣는 집 지정후원) 200,000원
- 해양수산부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지정후원) 500,000원
- 정보통신부 (꿈꾸는 집 지정후원) 600,000원

모금함 | 추풍령김자탕, 바른약국, 한솔도시락, 송현옥아구찜, 봉침한의원, BHC치킨, 뚱데지숯불갈비, 하나은행, 그린하이퍼슈퍼, 뿌리샘치과, 개인택시(이상준), 이인주정형외과, 스페이스미장원, 뺑굼터

취업장 | 맥도널드서울대점/ 칼슨마케팅코리아/ 하나기획/ 더불어사는 사회/ 비클시스템 / (주)유진유니크 / 신도리코(비즈웨이팀)

후원관련사항에 궁금증이 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한울에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며,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 전액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신혜은 T. 877-9964

[정기후원방법]

- 자동이체 : 각 해당은행에 신청하여 원하는 날짜에 일정 금액 자동이체
- CMS 후원 : CMS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본 기관에서 약정금액을 매달 정기적으로 인출 및 관리
- 무통장입금 : 해당은행 계좌로 무통장으로 원하는 날짜에 입금
- 계좌이체(온라인) : 은행방문 또는 흠뱅킹(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한울계좌로 이체신청
- 지로입금 : 매달 은행에서 지로번호(7302316)/지로용지로 송금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7-810031-14505
- 국민은행 404601-01-047133
- 농협 170118-51-010786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한울)

CMS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통합전산망을 통해 약정된 후원금을 후원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후원하시고자 하는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자동출금 이체서비스입니다.

CMS 자동이체 후원은 후원자님이 직접 은행에 나가는 불편함 없이 매달 쉽게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본 기관은 안정적으로 후원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울의 CMS 후원에 참여하실 후원자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02-877-9964 담당자: 신혜은 e-mail: 1wool@hanmail.net

※한울에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며,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금액 전액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울을 도와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님을 기다립니다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가지신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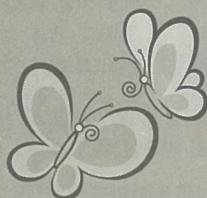
●봉사내용 : 식사준비, 문화프로그램 진행 (음악, 미술, 컴퓨터, 운동 등)

현장중심의 사회기술 훈련 전문 자원봉사 (매주 2회 참여)

알코올 전담 사례관리, 취업자 사례 관리

●봉사시간 : 매주 월~금 중 1시간 이상으로 시간조정 가능

●문 의 : 02-877-9964 (담당 : 윤숙경)



한울 자원봉사자님들

윤숙현, 심염희, 용선주, 최철영, 배우리, 조영옥, 삼성생명자원봉사단 12명(반찬지원 서비스) 총 18분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 중

1. 정신건강을 잘 유지하며, 자신감을 되찾고 싶은 분, 취업을 잘 유지하여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분, 소속감, 격려, 즐거운 여가활용을 필요로 하는 분

한울에 오시면

1. 스스로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2. 정신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은 1개월 후 보호작업장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3개월 이상 사회재활훈련을 받으신 분들에게 외부의 업체에서 시간제, 전일제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4. 한 가족과 같은 소속감과 의미 있는 대인관계, 일,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드립니다.



한울식구를 모집합니다.

한울과 함께 자활할 분들을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관악지부

www.1wool.or.kr

■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877-9964 fax. 877-9965

■ EM실천(장애인보호작업시설) 875-9744 fax. 875-9965

■ 새로돋는집 (남성그룹홈) 872-9961 fax. 853-2335

■ 꿈꾸는집 (여성그룹홈) 877-9974 fax. 877-9965